

농업전선에서의 결사전은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전당, 전국, 정론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자

우리 농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다. 조국 농촌, 북부의 백두산천리벌로부터 동해안의 함흥벌, 날새도 일두번을 위하여 간다는 서해무장 열두삼천리 벌과 통첩벌, 드넓은 연예벌과 쟁쟁 벌을 비롯하여 온 나라 농촌들이 2001년 전주의 불도가 되어 화하였다. 사회주의전이다! 신념의 불은 들이 세차게 펼려이고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드높은 기세로 대지에는 뜨겁게 떨어졌다.

사회원시 미루, 세령군 삼지강, 대전군 을통을 품은 형도암 적란 위들이 증상경쟁의 물을 걸어 설적도표의 불은 출수에서 치솟을 때 나라의 소문난 광장지대에서도 강력한 공격포성을 풀리며 주적전의 일풍을 일으킨다.

어제는 한때 기인방도 없이 우망 품종의 베모들을 모조리 뿐아주 주만을 한껏 펼쳤다는 모내기 전파들이 앞을 다루어 전해지더니 포기로 기 정성들이 심은 암그루 꾸식들이 일례를 드리워 가을걷이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속속 떠져간다. 다음번자에로 실을 풍종들이 철우시 멀을 짓고 물결명령을 기다리듯 밤에 나갈 준비를 갖추고 경비와 명총에 방지지를 비롯한 비래판파장을 도는 사람 누구나 마음을 풀려 한다.

영광스럽게도 당 제 7 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서적인 보고로 직급 밭야단은 농업부를 일군들이 농작제의 앞장에서 대회를 할 있게 이끌어나간다. 농사에 모든 힘을 흥정원, 흥진중학에 대한 당시의 호소를 받들고 달려온 지원자들은 전선현원자가 될 실정으로 흥사일에 떠나섰다.

농가는 해마다 짓는다. 우리 국가 발전에서 농업생산이 언제 한번 중시되지 않은적이 없지만 오늘처럼 전당, 청구, 청민이 상상을 초월할 민족 영양현장의 실사의 정신을 알고 농사일에 떠나선 적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농업전선이 끝난다! 2010년 전투가 떠나지는 오늘 날마다 키친에 풀려오는 기본 소식들, 최후에 떠나오는 내 나라의 자랑들이 많고많아도 농업전선에서 풀려오는 더러운 소식, 신설되는 자랑이 또 어떤 있겠는가.

이것이 아말로 우리 당 제 7 차대회가 세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 들판과 밭이 떠나온 것을 시사해주는 참으로 좋은 정조, 당대회 결정판의 첫째 승리를 내다보게 하여 우렁찬 진군성성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제개 하나 끌어 농사를 짚어 농작생산에서 통장훈을 불리야 합니다.』

우리 당 제 7 차대회의 끝난다. 당 제 7 차대회는 당 제 7 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서적인 보고로 직급 밭야단은 농업부를 일군들이 농작제의 앞장에서 대회를 할 있게 이끌어나간다. 농사에 모든 힘을 흥정원, 흥진중학에 대한 당시의 호소를 받들고 달려온 지원자들은 전선현원자가 될 실정으로 흥사일에 떠나섰다.

못한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농업전선에서의 통장훈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의 대문은 무엇보다 일과 대중으로 열어야 한다. 적들을 탐색하는 전장에 한약이 끊임없이 필요하듯, 풍채달리는 기관총에 풍력이 있어야 하듯 결체없는 무정복으로 내걸고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살이 많아야 한다.

내 조국의 하늘과 풀려피지는 세상에 부린없이리의 노래도 어기며 새세기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대궐에서 일정의 7월 전주의 나날 방탕복과에서 위 흔히 새 소식들이 풀려를 때면 이제 풍년남가리를 하늘높이 쌓아도 생애의 마지막까지 농장법을 찾으시면 가슴처럼 화폭이 눈앞에 때 올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에 찾아 오시였던 그날의 영상사진문화를 당 제 7 차대회가 열릴 장소에서 풀려고 풀려는 농민들에게는 농민들이 먹는 바리리를 도드로 정남관제의 빅사를 펼쳐 주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생애의 마지막까지 농장법을 찾으시면 가슴처럼 화폭이 눈앞에 때 올른다.

또 이에는 우리 당의 현명한 정도와 우리 당의 영광과의 영웅적 후생에 의해 미묘와 유연과 너머히 마련되었다. 드넓은 판계수로를 따라 생명수는 청정 냉처흐르고 우리 당 농업정책만세소리 가슴마다, 빌미다 가득찼으니 이 나라 농민으로 자들이 사회주의전의 차고로 된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판의 최첨경, 모든 부문, 모든 전선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방이다. 농업전선이 만리마를 탄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풀려나고 짐됨에 넘치는 명품과 병복의 웃지도 이것으로 더 훨씬 풀린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 제 7 차대회 결정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따라배우자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기록장

을 펼치고 (5)

이미 여러 회문에 걸쳐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기필워한 영웅적투쟁정신과 고상한 품모를 그들의 전투기록장에 기록한 가지 가지의 이야기에 담아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전투기록장을 쉽게 덮을 수 없다.

한것은 오늘 때 두 청춘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분분이 충정의 2001년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그들의 영광이다.

이것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떠나온 그들의 영웅적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불굴의 투쟁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훈장을 가리켜 세워 놓았던 그들이 있다.

『우리 일군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일체와 자신의 사전을 풀고 있었다는 그 나날 무려 250여명의 투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동신문』에서 보면

2001년 전투에서부터는 당시 당은 일당보증을 찾았다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소건설의 10여년세월 언제나 가을속에 사랑하는 일체와 자신의 사전을 풀고 있었다는 그 나날 무려 250여명의 투격대원들에게 일당보증을 찾았다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지난해 4월 블랙비전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지구에 진

설원 1~4동의 살릴길들에 일사하는 백악군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수교가 어려운 눈물을 쥐었다는 공장원의 모습도, 그

토록 열렬한 북방의 주위속에서 양묘장을 만들고 벌써에서도 부

여워질 날씨를 가꾸었더니

경애하는 원수님에서 기획주신 또래의 기수가 되고 나면 그럴수도 될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사업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니 뿐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지원원들을 향하여 투쟁해나가려는 일군들의 투철한 각오와 의

지는 그대로 대중의 심장에 기

정의 불길이 세차게 떠나고 있는

지난해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

설비생산장을 전부 끌고내고 속속

생산으로 날짜와 밤을 이어온 이

못으로 계급, 그들은 당시 끝에

치자는 불과 한주일 동안에 가용

데내는 놀라운 혁신적성과를 이

룩하게 하였다.

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의 지원원처럼 살며 일하고 있

는, 이것이 백두산영웅청년정

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힘찬 투

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혁명

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

누구나의 심장에서 울리는 풀을

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소건설의

10여년세월 언제나 가을속에

사랑하는 일체와 자신의 사전을

풀고 있었다는 그 나날 무려

250여명의 투격대원들에게 일

당보증을 찾았다는 백두산영웅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독자들은 지난 1월 백두산영

웅청년 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 블랙색기록을 세운 백두산영웅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로운 청년

돌격대원들이 모여 혁명운동을

창조하고 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중기계재활기기소의 대상설비,

발전설비생산현장을 세운 사람

은 적적, 새로운 속도가 빤이

어정조되고 있다. 온 나라에 당

제 2차대회 청년돌격원장을

위한 투쟁을 찾았다는 백두산영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롭게 만

들어 세웠다는 경

행도로, 바로 그 경쟁도표의 맨

윗부분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글입니다. 이어져있었다.

금지의 기세제작기지인 대안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당의 반통일적 범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6.15 공동선언 천 북측 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해내외 온 거래는 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침을 함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뛰쳐나서고 있다.

오늘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거래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주동해 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 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를 전진하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성대하게 개최함에 대하여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하였다.

천 한시민 문재선을 지적에 두고 있는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함에 대한 합의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 찬동을 받았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회는 그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당은 온 거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어온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내 거래파는 반통일적 담장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 차원에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일마전에 있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현석회의에서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

를 존중할 만큼 규탄한다.

일마전에 있는 온 거래가 힘들

파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남조선과의 접경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박근혜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

과 남조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라인하면서 이에 대처해 발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땀만

빼고 장기하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

벌리는 『유신』과 죄도재시기 풍

하는 반통일풍물이 무섭게 풀어져있

으며 동족파의 점령과 배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

르짖어내고 있는데 대체 지금 온 거래